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어야 한다

2015 년 3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평양양로원건설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이날 건설장의 전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양로원을 보양생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표준으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지방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양로원들을 잘 건설하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양로원들을 보양생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금자리로 잘 꾸림으로써 그들이 당과 국가,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옷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 가게 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을 위해 양로원을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크나큰 흥분으로 높뛰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는 년로자들을 잘 돌봐주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늘 가슴깊이 새기고 자신들의 사업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